

화순교육청, '고교학점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실시

관내 중학생 학부모 100여명 대상 운영

아이의 성향에 맞는 진로 및 로드맵 설계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화순제일중학교 강당에서 관내 중학생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진로·진학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진로를 고민하여 학교 생활기록부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

히 다루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홍보와 상담의 시간을 마련하여 각 학교의 특성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맞는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앞으로 실시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의 중요성 및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며, 관내 고등학교 홍보 및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서 아이의 진로·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및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진학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신안 하의초, 애플데이 프로그램 실시



신안 하의초등학교 Wee클래스에서는 지난 7일을 너(1)와 나(1)가 친구(7) 되는날로 포레스트상자와 함께하는 애플데이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애플데이에서는 편지쓰기 행사로 친구관계를 생각해 보고 서로 아끼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에게 포레스트상자들은 편지와 사과를 전달해 주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만들었다.

더불어 애플데이 칭찬나무에는 'ㅇㅇ아 너는 그림을 잘 그려', 'ㅇㅇ아 너 축구를 잘해', 'ㅇㅇ 선생님 너무 착해요' 등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칭찬의 글이 만개하였다.

Wee클래스 행사에 참여한 친구들은 '재밌다', '즐겁다'고 말했으며, 한 친구는 "평소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담양 무정초, 건강한 식생활 위한 아침밥 먹기 실천 나서



무정초등학교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아침 등교 후 학교에서 전교직원 및 학생들이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아침밥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바른 식습관 형성 위해 실시

먹기 실천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일주일간 매일 등교 후 운동장에서 건강검진 후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며, 중간놀이 시간에 건강체조를 실시한다. 1학년 학생은 나눠준 삶은 계란과 방울토마토를 먹고 "아침밥을 거의 안 먹었는데 학교에 와서 운동을 하고 간식을 먹으니 너무 기분이 좋고 맛있다"고 하였다.

아침식사는 아침을 여는 첫 식사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적이지만 맞벌이 부부증가,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아침을 먹지 않아 오전내 공복감에 시달리다 폭식하는 식습관이 생겨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비만이 생기거나 학습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무정초 배수경 교장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아침식사 캠페인을 통하여 아침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아울러 적당한 신체활동을 통해 똑똑하고 건강해지는 무정초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 소호초, 학생자치회 환경 캠페인

여수 소호초등학교 전교학생자치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등교시간을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 내고자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활동은 전교학생자치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전교학생자치회 학생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로 진행되었다. 각 부서별로 활동을 계획하고 안내 홍보문을 만들어 안내하였으며, 방과후에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캠페인에 필요한 팸탈을 직접 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하였다.

캠페인 활동을 직접 꾸미고 계획한 전교학생회 임원 6학년 조OO 학생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면서 지구를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캠페인 활동을 지켜본 3학년 이OO 학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담은 팸탈을 보니 지구를 위해 직접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영암교육청,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내 초등학교 20명 대상, 찬반 대립 토론·인문학 활용 글쓰기 교육 등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대불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2022.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암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2022.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10월 15일(토)부터 11월 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16차시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토론의 기초, 독서 활용 브레인라이팅 토론, 피라미드 토론, 찬반 대립 토론, 인문학 활용 글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됐다.

'2022.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삼호중앙초등학교 5학년 조하윤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해보고 좋은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사고기술을 넣어 영암 소개하는 글쓰기와 '샌지와 뽕집 주인'을 읽고 샌지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즐거웠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최광표 교육장은 "이번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인문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평생 독서인 양성을 위해 독서·토론·인문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